



자본시장제도 이해(1): 프라임 브로커(Prime Broker)

이경아 연구원

■ 프라임 브로커(Prime Broker)는 헤지펀드사가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를 말함.¹⁾

- 헤지펀드에게 제공하는 종합금융서비스는 증권대차(Security Lending and Borrowing), 신용공여 및 담보관리(Financing and Margin), 펀드재산 보관·관리, 매매체결·정산 등을 포함함.
- 전 세계적으로 30여개 정도의 프라임 브로커가 존재하고, 이 중 Morgan Stanley, Goldman Sachs 등 소수의 대형투자은행이 60%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(IFSL, 2007).

■ 프라임 브로커는 복잡한 헤지펀드 매매를 한 곳에 집중시켜 거래 및 청산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증권청산의 편리함을 제공함.

- 프라임 브로커의 중앙모계좌(Master Account)에서 헤지펀드의 현금과 증권을 보관하고 이를 통해 헤지펀드의 거래 상대방인 여러 투자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.
- 예를 들어, 헤지펀드 운용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브로커의 수만큼 거래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모든 매매거래, 증거금 예치, 투자 포지션 등을 프라임 브로커 계좌를 이용해 통합 보유·관리 할 수 있음.

■ 프라임 브로커의 핵심 업무는 공매도를 위한 증권 대여와 자금공급을 통한 레버리지 공급 등임.

- 헤지펀드의 투자전략은 상당 부분 공매도(Short Selling)를 포함하고 있어 증권 대여 능력은 상당히 중요한 프라임 브로커의 평가 요소임.

1) 프라임브로커 개념은 1970년대 후반 미국 브로커-딜러인 Furman Selz에 의해 시작됨.

- 증권 대여란 프라임 브로커가 뮤추얼펀드, 연금 등 장기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한 뒤 이를 다시 헤지펀드에게 대여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짐.
 - 레버리지 확대는 헤지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헤지펀드는 프라임 브로커가 제공하는 신용대출(Margin Lending)을 통해 레버리지화 된 투자전략을 실행함.
- 프라임 브로커의 부수 업무는 자산보관업무(Custody), 자금유치(Capital Introduction), 각종 보고기능(Reporting) 및 각종 자문서비스(Service) 등을 포함함.
-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의 자산을 관리·보고(Asset Servicing)하는 기능을 수행함.
 - 헤지펀드는 보유자산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다양한 포지션을 취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프라임 브로커는 효율적인 담보관련 서비스를 제공함.
 - 또한 초기단계의 헤지펀드에게 자문서비스(Start-up and Consulting Services)를 제공하고 잠재적인 투자자를 연결시켜 주는 자본알선의 역할도 담당함.
- 최근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안 개정으로 프라임 브로커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조만간 국내 프라임 브로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됨.
- 자기자본, 위험관리 능력 등 법상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투자은행(종합금융투자사업자)으로 지정함.
 - 3조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으로 업무범위 확대 추이에 따라 조정함.
 -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프라임 브로커 업무 수행 시 헤지펀드의 '증권 이외의 투자'와 관련하여 해당 헤지펀드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음.
 - 헤지펀드의 투자 범위는 증권 이외에 일반상품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까지 가능함.
 - 법상 프라임 브로커 업무는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, 신용공여, 펀드재산 보관·관리, 매매체결·정산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연계하거나 또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.